

# 여성교육분과위원회 박혜자 위원장 선출

##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여성교육분과위원회 창립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는 여성교육분과위원회 창립회의가 7월7일 사무국에서 27명의 위원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혜자 위원장을 초대 여성교육분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송미령 위원을 총무로 지명했다.

박혜자 여성교육분과위원장은 "여성교육분과는 그저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닌 우리 사회에서 지역 역할을 다하는 단체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포천지역 전반에 걸쳐 다양한 재능을 지닌 인재들로 구성했다"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포천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여성교육분과위원회는 2009년 사업으로 ▶ 세계나 생활품의 친환경적 접근방안 ▶ 청소년 학교 폭력에 전문가 교육을 통한 접근방법 강구 ▶ 금연 캠페인을 위한 사진을 포스터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는 여성교육분과위원회 창립회의가 7월7일 사무국에서 27명의 위원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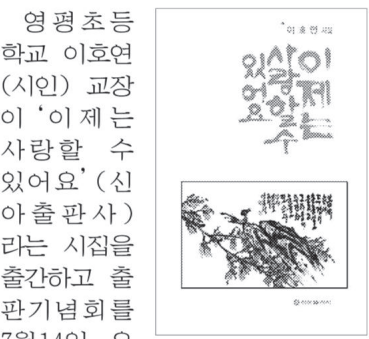
로 제작해 행사장 등 잘 보이는 곳에 전시 ▶ 친환경적 화장품 직접 만들어 쓰기 홍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포천의제21은 환경생태분과, 기획홍보분과, 문화복지분과, 산업경

제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월7일 여성의 권익과 교육발전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게 될 여성교육분과를 신선했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hsd5333@hanmail.net

# 영평초 이호연 교장 詩集 '이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출판기념회



영평초등학교 이호연(시인) 교장이 '이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신아출판사)라는 시집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7월14일 오후 3시 영평초등학교 다목적실에서 개최한다.

이호연 교장은 "이제는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집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참석해 주신다면 무한한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 교장은 월간문화지 한책문화 2006년11월호에 채석강, 아침, 이제는 사랑할 수 있어요, 머지 않아 등의 작품으로 등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가입자 노후설계 맞춤형 고객서비스 확대

## 국민연금공단 포천지사 노후 설계서비스 행사 큰 호응

국민연금공단 포천지사(지사장 박영호)는 건강, 문화 및 노후 설계서비스 행사를 6월25일 오후3시부터 철원군 갈말읍 정영리(민통선부락)에서 갈말농협 후원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연대사업 행사를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 속에 실시했다.

포천지사의 2008년도 대국민홍보 핵심사업으로 진행된 건강, 문화 및 노후설계서비스 행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치집, 대체의 학 강의 및 음치로 등의 건강경

보 제공과 가입자의 일자리, 재무설계 등 노후설계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증진 및 가입자들의 노후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맞춤형 고객서비스 프로그램이다.

민통선마을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철원군 갈말농협과 포천지사가 연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건강, 노후설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



국민연금공단 포천지사는 건강, 문화 및 노후 설계서비스 행사를 6월25일 철원군 갈말읍 정영리(민통선부락)에서 실시했다.

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포천지사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이 매우 알차고 유익하며, 오늘과 같은 행사가 많은 타지역 주민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동화작가 원유순 선생님과 만남

## 포천초등학교 작가와의 만남 행사 마련

포천초등학교(교장 임종수)는 7월2일 실내체육관에서 전체 어린이들과 동화 작가 원유순 선생님의 만남행사를 마련했다.

작가 소개와 작가 선생님의 강연 그리고 어린이들이 선생님께 궁금한 것을 응답, 팬 사인회를 한 오늘의 행사는 포천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독서습관 생활화와 정서 함양을 통한 올바른 인성이 형성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동화인 까마귀는 산디가, 피자반장, 조금 늦어도 괜찮아 등 많은 동화를 쓰신 원유순 선생님은 오늘 강연에서, 꿈을 키우는 어린 시절에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잘 하지 못한다고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포천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은 원유순 선생님이 쓰신 동화책을 집에서 가져와 싸인을 받으며 기뻐



포천초등학교는 7월2일 실내체육관에서 전체 어린이들과 동화 작가 원유순 선생님의 만남행사를 마련했다.

했으며 5학년 이창술 어린이는 "원유순 선생님이 쓰신 책은 '까마귀는 산디가'만 읽었는데 이번 기회에 도서관에서 가서 모두 찾아 읽어보아겠다"고 말했다.

이지연 학생명예기자 (포천초 5년) jskfkg33@hanmail.net

# 시

## 눈물



김은희 주부명예기자

여름을 헤신한 매미는 꿈쩍도 할 수 없었다. 몸을 추스를 새도 없이 천둥, 번개, 소나기로 물러지는 고난에 젖어있었다.

한철

소음으로 사라진 몸부림도 번뜩이며 갈라선 검은 하늘에 고개 떨군다.

어깨를 들쭉이던 삶의 순간들 가슴 때리는 천둥소리의 떨림으로 뿌리 채 뽑힐 수 없는 기억만 머릿속에 심었다.

어느 폭풍 심한 날 뛰쳐나온 사람 이별을 고할 때 밤새 내 가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 월빙 부사의(不思議) 학습(學習)과 습득(習得) 55

학습(學習)이란 말도 있고 습득(習得)이란 말도 있다. 영어로는 학습을 러닝(learning)이라 하고 습득을 액위지션(acquisition)이라고 한다. 학습이나 습득이나 거기에 거대한 차이가 있지는 않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학습이란 배워서 익히는 것이고 습득이란 익혀서 얻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러하다. 아이가 태어나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접촉(接觸)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익혀 가는 것은 습득이고 사물을 분별(分別)하는 나이가 되면서 글과 책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궁구(窮究)해나가는 것은 학습이다.

# 학습은 배워서 익히는 것이고 습득은 익혀서 얻는 것이다

리를 하나하나 구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름대로 그 말을 담는 틀을 만든다. 습득(習得)이란 단어(單語)이다. 아이들이 말귀가 트이면서 그 말이 지니고 있는 뜻을 언어라는 틀에 하나하나 갈무리해나간다. 의사소통(意思疏通)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말을 주고받는 것이다. 뜻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뜻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생각도 주고받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것은 대내(intra) 커뮤니케이션이라 하고 상대와 뜻을 주고받는 것은 대외(inter) 커뮤니케이션이라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거나 말을 주고받을 때 그 생각이나 말을 나타내는 틀을 짜나가는 것이 바로 습득이다. 이러한 습득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소리(sound)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담겨있는 뜻(meaning)까지 배우는 것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세상 이전에 배운 것이 평생(平生)을 지배한다는 말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 이전에 습득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세상 이전에 인격(人格)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습득이란 생각을 지배하는 틀이다. 습득이란 한번 형성되면 평생 그대로 간다. 습득(習得)이 중요한 이유이고 환경(環境)이 중요한 이유이다. 어릴 때 고온 심성(心性)을 심어줘야 하는 이유이다.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며 습관(習慣)을 낳고 습관이 인격(人格)을 만들며 인격이 운명(運命)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조심하고 언행(言行)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이다.

학습의 특징은 글을 통해 배운다는 것이고 스승을 통해 배운다는 것이다. 첫째는 글을 알아야 하고 둘째는 스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독학(獨學)으로 공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일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승을 통해 배우고 익힌다. 물론 그 스승은 학교의 선생님(先生)일수도 있고 집안의 부모님(父母)일 수도 있다. 선생님이 나 부모님이나 가르치고 깨우쳐 준다는 점에선 같은 것이다. 기능(function)면에선 같은 것이다. 그런데 학습하려면 文字(文字)를 알아야 한다. 단어(單語)를 알아야 한다. 단어로 말하기 때문이다. 단어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규임 인문학박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그리고 표현해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하거나 새로운 상황(狀況)에 부닥치면 그에 걸 맞는 말을 찾는다. 표현을 찾는다. 그리고 그 말에 의미(meaning)를 부여한다. 의미(意味)로 소통하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에게 학습(learning)과 습득(acquisition)은 가장 민감한 어휘(vocabulary) 가운데 하나다. 지리면서 저절로 배우는 습득은 언어(言語)를 체득하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環境)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외국어(外國語)를 배울 때 그런 환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교재를 통해 교실(教室)에서 배워야 하는 과정은 거치는 것이다. 우리나라 어린이가 외국어 습득을 잘 하게 하려면 유아(幼兒) 때부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時期)를 놓치지 않는 것과 지속적(持續的)으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언어습득(言語習得)은 시기와 환경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 자유기고 사랑을 나누는 멋진 고장촌 한얼교회

주황색 조기가 유난히도 눈에 띄는 곳에 내촌면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가 마련됐다. 6월28일과 7월 5일 주민들을 위해 침술, 경락마사지, 이마용, 장수 사진 촬영 등 평촌의 새중앙 교회와 협력하여 이루어진 봉사로 주민들을 위해 점심, 저녁을 대접하는 모습이 정말 멋진 모습이었다.

고장촌 한얼교회(이내성 목사)는 늘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개척 교회로 평상시 주말이면 어려운 학생들과 은보원 가족들이 늘 함께 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푸른솔이런 자원 봉사 단체를 만들어 내촌면에서 지역학생들을 위한 공부방과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그 행사에서도 멋진 모습으로 일관했다.

내촌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한얼교회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이내성 목사님과 김경순 사모님, 그리고 그곳의 모든 교우들은 언제나 남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멋진 곳이다. 마을 주민을 위한 초정 잔치에 많은 어르신들의 식사와 미용, 봉사, 침술 등 많은 도움을 주민들에게 안겨준 아주 멋지게 사랑을 나누는 주민 잔치였다. 내촌을 위한, 내촌 주민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더 좋은 봉사를 하고 싶다는 것이 한얼 교회의 꿈이라 했다.



김순희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 자유기고 소흘읍 주민자치센터 개소

지난 7월1일 소흘읍사무소 마당에서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및 위원회 취임식이 있었다. 2007년부터 많은 준비 끝에 솔로루문화회관이 주민들을 위한 손색없는 공간으로 새롭게 증축되어 주민자치센터로 개소되었으며 4만7천여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개소식을 개최함과 아울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센터로서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솔로루 주민 한마당 잔치도 이어졌다.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이 주축이 되어 행정의 방향을 선도하고 환경·문화·복지 등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을 스스로 처리 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이며 주민이 지역의 의제를 찾아 충분한 토의와 표출로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과 봉사를 하는 곳"이라고 소흘읍사무소 차장(위원장)은 1993년 17대 소흘면장으로 부임, 1998년까지 읍장을 역임 하셨다.

읍 자체로부터 좋은 방안을 모색해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한다. 센터의 공간 활용은 이미 6월부터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엄정된 감사진에 의해 수목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특히 아학(중학교 과정)은 진동선(전 동남교 교장)님과 전직 교장선생님 한여 교등학교 선생님들이 참여한 훌륭한 무료 강좌다. 또한 모든 기초 수급자에게 상하수도·전기·가정수리·열세·도배 등등이 전문인에 의해 무료 봉사됨은 물론 독거노인 돌보기 청소 빨래 반찬등이 제공될 예정이며 7월 16일 솔로루 한마음 봉사단 창단식에 많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하시면서 읍사무소 민원실 입구에 있는 사랑의 쌀 나누기 등에 항상 쌀이 있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갖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하셨다.



김기호 주부명예기자단 교민

퇴임 후 공직 생활 중 좀 더 지역을 위해 주민을 위해 봉사 헌신 하지 못 했음을 늘 안타까워 했고 마음의 짐으로 생각 해 오던 중 '참 봉사를 할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고 감사히 가까이 위원장직을 맡았노라 하시는 일일결연의 고요함과 뜨거운 열정이 스쳤다.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묻자 크게 주민의 의식 개선과 센터 공간에서의 문화 교류로 말씀하셨는데 새 마을 운동도 좋지만 이제는 새마을 운동으로 전개 되어 바르게 사는 삶을 추구함으로써 주민 개인의 존재가치를 극대화 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 관에 의한 관치가 아닌 자치로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협조하고 단합하여 가능한 스스로 해결해 나아가고자 행복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특히 교육문제에 있어 공교육과 교원의 상상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며 소흘

읍 자체로부터 좋은 방안을 모색해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한다. 센터의 공간 활용은 이미 6월부터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엄정된 감사진에 의해 수목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특히 아학(중학교 과정)은 진동선(전 동남교 교장)님과 전직 교장선생님 한여 교등학교 선생님들이 참여한 훌륭한 무료 강좌다. 또한 모든 기초 수급자에게 상하수도·전기·가정수리·열세·도배 등등이 전문인에 의해 무료 봉사됨은 물론 독거노인 돌보기 청소 빨래 반찬등이 제공될 예정이며 7월 16일 솔로루 한마음 봉사단 창단식에 많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하시면서 읍사무소 민원실 입구에 있는 사랑의 쌀 나누기 등에 항상 쌀이 있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갖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하셨다.

끝으로 '불타는 열정,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겸허한 자세' 의 마음 기쁨으로 마중물의 역할을 맡은 자치위원회 위원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내셨다.

기간상이나 소흘이 존립하는 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센터로서 희망의 횃불이 되어 꺼지지 않고 늘 환하게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염원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후원인 모든 분께 아름다운 감사의 찬사를 보낸다.

센터 문을 나서자 읍사무소 주변의 소나무가 어쩔 이처음 위원장직을 맡았다는 생각이 마음 든든히 안고 다시 한 번 소흘읍과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소흘읍민의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 Essay 감자

오늘은 새벽공기가 유난히 후덥지근합니다. 장마철 고온다습한 기우는 한 밤에도 기운이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로 이어져 새벽에 신문배달을 하는 저 같은 사람도 더위와 싸우느라 끈목을 치르죠. 이런 날은 물러오는 잠을 쫓기 위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양쪽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핸드폰 앰피리터 음악을 일하는 내내 크게 틀어놓고 다닙니다.

앰피리터 이어폰을 오래 사용하면 난청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운전 중에 물러오는 잠을 쫓기 위한 전행이 저에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하는 중간 중간 껌을 씹으며 음악에 맞춰 웃노래도 부르고 일을 하다 간혹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일과가 산정후수에 도착할 때쯤이면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데 도로변 채소밭에서 일을 하시는 아버지를 자주 만나 뵙게 됩니다.

친구의 아버지이고 선친과 친구이시며, 경주김씨 종친이 되시니 그러저러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 할까요.

그러나 제가 한때 농협이사로 지내면서 농협운영에 대한 서로의 사고방식이 달라 범접을 오가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적도 있었지만 이런 그분도 평범한 아버지요, 저도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농협과의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고 싶다는 도와달라고 하자 아버지는 흔쾌히 친구인 이사, 감사사를 실컷하여 저와 자리를 마련해주었고 덕분에 저는 그분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대장암 수술과 항암 치료 등 힘든 투병생활을 거쳐 건강을 되찾으시고, 농사지으며 살아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울컥 초췌함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 목이 메이기도 합니다.

항암치료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느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지 못하셨다고 미안해하셨던 아버지는 제가 지나다니는 길 옆 채소밭에서 일하시는 모습으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만날 때 마다 아버지가 세워둔 차 안에 신문물을 넣어드리곤 했습니다. 오늘도 신문을 넣어 드리려고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저를 본 아버지가 쫓아오셨습니다.

커다란 감자가 가득 들어있는 바구니를 들고서....

"감자 가져가."

방금 캔, 제 주먹보다 훨씬 큰 감자는 흙이 채

마르지도 않아 아주 싱싱했습니다.

"신문도 자주 드리지 못하는 데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신문 때문에 주는 줄 아니? 우리 사이가 그런 게 아니잖아?"

서너 관은 족히 되는 감자를 큰 비닐봉지에 담아서 주시는 아버지가 저를 또 다시 미안해합니다.

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집에 돌아와 감자를 볶아 먹으니 고소한 감자의 향내가 입안에 가득 퍼지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만큼이나 정겹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무슨 일을 해도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일과를 마무리하고 늦은 저녁 사무실에 도착해보니 감자가 또 있는 겁니다. 5관람이 커다란 포장용 규격박스에 들어있는 감자를 보고 저는 또 한번 의문에 빠져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누가 또 감자를 가져다 준 걸까?"

그럴 만한 사람이 한 사람 떠올랐습니다.

농협에서 함께 대의원을 지내고, 함께 농협을 개혁해보자고 의기투합했던 분이 있었거든요.

한 동네에 살며 서로 농협문제에 대해 많은 토론도 하고, 지금도 농민회에서 일을 하시며 획기적인 농사 방법등을 연구하고 홍보하기 위해 애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저녁엔 너무 늦어 전화를 하지 못하고 다음날 그분께 전화하여 어제 감자를 가져다주신 게 맞냐고 물었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파는 감자를 그냥 주시면 어떻게 해요? 돈을 받으셔야죠?"

그랬더니, "돈 받고 팔려고 했으면 갖다 주지도 않았어요." 하시니 감집니다.

저는 또 한번 행복에 빠졌습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네요. 제 주변에 저를 이렇게 생각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무엇이 부족했나요?

감자만 바라봐도 마음이 뿌듯해지고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은데 울 여름엔 감자판매대에 감자 수제비, 감자 튀김등 감자요리를 실컷 먹게 생겼어요.

전 정말 감자를 좋아하거든요. 누구 감자 먹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저의 이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